

선생을 위해 기도하라

작성일 : 2009. 10. 25 (일) 새벽 2:00

작성자 : 정예인 목사 (대전 대명 교회)

[저희가 선생님을 위해 해 드릴 일을 알고 싶다고
기도했을 때 받은 글입니다.]

너희는 너희 선생이 그 좁은 곳에서 눈물 흘리며
얼마나 나만 찾고 부르는지 아느냐.
그의 한숨 소리, 그의 눈물을 아느냐.
그러니 제발 너희가 너희 선생 심정 알아야 한다.
쓰러지면서도 너희를 위해 일하는 그 마음
너희가 알아야 한다.
너희는 너희가 힘든 것,
너희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만
너희 선생은 너희 한 사람, 한 사람 살리려
몸부림을 치고 있노라.
그 마음, 그 심정 알아야 한다.

제발 내 사랑하는 이의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된다.
그는 매일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고 있노라.
그 어려움 속에서 할 일을 다 하고 있노라.
너희는 알아야 한다.
너희 선생의 마음을.....
그리고 기도해 주어야 한다.
너희의 기도가 크도다.
제발 너희 선생 위해 기도해 주어라.
그 심정 위로해 주어라.

나는 너희 선생 쳐다보면 불쌍하고 안쓰럽다.
그러니 너희는 너희 선생을 보호해다오.
진정 그 심정 알고 행해다오.
섭리의 신부들아.
너희 선생의 신음 소리를 들어보아라.
말 못하는 심정 헤아려 보아라.
부탁한다. 부탁한다.
너희 선생 위해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. 기도를.....